

이화여대 2021학년도 모의 인문 I 1-1번

☞ 제시문 [가]의 '여유'와 제시문 [나]의 '통곡'의 의미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20점]

[가]

여유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먼저 물질적 여유, 공간적 여유, 시간적 여유처럼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으로 규정되는 여유가 있다. 이때는 여유의 기준이나 넉넉함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비교적 객관적인 편이다.

여유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마음의 상태라고 지칭하긴 했지만 그 마음이 드러나는 표정, 태도, 행동 등을 통해 여유를 가늠할 수 있다.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디에 놀러 가는 것도 특별한 이유 없이 다 싫어진다. 반면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둘러싼 분위기에서 여유로움을 감지할 수 있다.

쉬는 것이 죄처럼 여겨지는 사회에서 여유를 능동적으로 찾는 일은 언뜻 뒷걸음질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유를 낼 때에,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한 발 물러섰을 때에 비로소 주위를 둘러보는 일도,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도 가능해진다. 여유가 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여유를 내려면 의지와 간절함이 필요하다. 여유를 낸다는 것은 다른 것을 할 수도 있는 시간을 나로 향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스스로에게 본래의 정체성을 찾아 주는 일, 나를 둘러싼 시간과 공간에 나를 분명하게 각인하는 일, 마침내 삶이 희미해지지 않게 하는 일, 나는 이러한 일이 모두 자발적으로 나서서 만드는 여유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내가 현재 누리는 여유에 마땅한 이유를 찾아 주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나]

말을 세우고 사방을 돌아보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을 들어 이마에 얹고 이렇게 외쳤다. “훌륭한 울음터로다! 크게 한번 통곡할 만한 곳이로구나!” 정 진사가 묻는다. “하늘과 땅 사이의 탁 트인 경계를 보고 별안간 통곡을 생각하시다니, 무슨 말씀이신지?” (중략)

“사람들은 다만 칠정(七情) 가운데서 오직 슬플 때만 우는 줄로 알 뿐, 칠정 모두가 울음을 자아낸다는 것은 모르지. 기쁨[喜]이 사무쳐도 울게 되고, 노여움[怒]이 사무쳐도 울게 되고, 즐거움[樂]이, 사랑함[愛]이, 욕심[欲]이 사무쳐도 울게 되는 것이네. 근심으로 답답한 걸 풀어 버리는 데에는 소리보다 더 효과가 빠른 게 없지. 울음이란 천지간에서 우레와도 같은 것일세. 지극한 정(情)이 발현되어 나오는 것이 저절로 이치에 딱 맞는다면 울음이나 웃음이나 무에 다르겠는가. 사람의 감정이 이러한 극치를 겪지 못하다 보니 교묘하게 칠정을 늘어놓고는 슬픔에다 울음을 짝지은 것일 뿐일세.” (중략)

정 진사가 다시 물었다. “이제 이 울음터가 저토록 넓으니, 저도 의당 선생과 함께 한번 통곡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통곡하는 까닭을 칠정 중에서 고른다면 어디에 해당하겠습니까?”

“그건 갓난아기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하지. 성인이든 우매한 백성이든 누구나 죽게 마련이고, 또 사는 동안 온갖 근심 걱정을 두루 겪어야 하기 때문에, 갓난아기는 세상에 태어난 것을 후회하여 스스로 울음을 터뜨려서 자기 자신을 조문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갓난아기의 본래 정이란 결코 그런 것이 아닐세. 어머니 배 속에 있을 때에는 캄캄하고 막혀서 갑갑하게 지내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탁 트이고 환한 곳으로 나와서 손도 펴 보고 발도 펴보니 마음이 참으로 시원했겠지. 어찌 참된 소리를 내어 자기 마음을 크게 한번 펼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우리는 저 갓난아기의 꾸밈없는 소리를 본받아서, 한바탕 울어 볼 만하이. 여기부터 산해관까지 1,200리는 사방에 한 점 산도 없이 하늘 끝과 땅끝이 맞닿아서 아교풀로 붙인 듯 실로 꿰맨 듯하고, 예나 지금이나 비와 구름만이 아득할 뿐이야. 이 또한 한바탕 울어 볼 만한 곳이 아니겠는가!”

최은식T 논리평면 인문논술 '작품' 원고지										이름			
대학교			학년도			기출 / 모의				계열		번 문제	
개 요													
문장 기능		해당 내용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350												
	375												
	400												
	425												
	450												
	475												
	500												
	525												
	550												
	575												
	600												

📌 제시문 [가]의 '여유'와 제시문 [나]의 '통곡'의 의미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독해]

(가) 자발적 의지 → 주관적(내적) 여유 → 자아성찰

(나) 울음에 대한 편견 극복 → 극치의 감정 → 통곡(울음)

[논리평면] 비교

공통점	편견을 극복한 여유와 통곡은 모두 자아 발전에 기여한다	
차이점	인식의 전환	결과
(가)	쉬는 것에 대한 편견 극복	자아의 성찰
(나)	울음에 대한 편견 극복	참된 자아를 표현

[예시답안] 678자

문단	기능	내용
1	공통점	제시문들에 나타난 여유와 통곡은 모두 편견 극복을 통해 자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통로다.
	쟁점 A	다만, 어떤 편견을 극복하는지,
	쟁점 B	그리고 여유 혹은 통곡을 통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상이한 모습을 보여준다.
2	(가)A핵	먼저 제시문 (가)에 나타난 여유는 쉬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극복해야 누릴 수 있다.
	(가)A상	우리 사회는 여유를 누리는 것을 죄를 짓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데, 자발적 의지를 내어 이런 선입견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가)B핵	이렇게 여유를 갖게 되면 자아를 성찰할 수 있게 된다.
	(가)B상	자신의 본래적 정체성을 찾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3	(나)A핵	반면, 제시문 (나)에 나타난 통곡은 울음이 단지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을 깨달아야 그 진정한 가치를 마주할 수 있다.
	(나)A상	슬픔뿐만 아니라, 기쁨, 노여움, 즐거움 등의 감정이 극한에 달할 때, 이러한 격한 감정이 울음, 즉 통곡으로서 표출될 수 있고, 이렇게 편견을 극복할 때 참된 의미의 통곡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B핵	이렇게 참된 의미의 통곡을 표현한다는 것은 곧 편견에 갇혀 있던 본성적 자아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B상	아무런 선입견을 갖지 않은 갓난 아이가 태어남의 기쁨을 울음으로 표현하듯, 통곡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이 갖는 본연의 감정을 제한없이 인지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대학 출제의도]

제시문 [가]에는 인간의 본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 ‘여유’가 필요하다는 생각, 제시문 [나]에는 다양한 감정을 숨김없이 느끼고 표현하는 ‘통곡’이 중요하다는 통찰, 그리고 제시문 [다]에는 인간이 좋은 예술작품을 통한 교육을 거쳐 바람직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견해가 표현되어 있다. 서로 다른 소재를 다루며 그에 대한 관점도 상이한 글들을 읽고, 주어진 글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 글쓴이의 주장이나 입장에서 대상을 이해하는 힘, 그리고 글쓴이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역량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대학 제시문 해설]

제시문 [가]는 시인 오은의 수필 「이유 있는 여유」에서 발췌한 글이며, 여유에 대한 새로운 인식, 그리고 여유와 필요성과 기능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다. (출처: 『국어』, 미래엔, 2018, 161-164쪽)

제시문 [나] 박지원의 『열하일기』 중 「도강록」에서 발췌한 것으로, 통곡에 대한 새로운 인식, 그리고 다양한 감정의 극치로서 통곡이 가지는 의미를 논하고 있다. (출처: 『국어』, 금성, 2018, 43-45쪽)

[대학 예시답안] 515자

제시문 [가]의 ‘여유’와 제시문 [나]의 ‘통곡’은 모두 인간으로 하여금 본성을 인식하는 계기이자, 그에 이르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띠고 있다. 제시문 [가]의 ‘여유’는 인간으로 하여금 본래의 정체성을 찾게 하는 것이며,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을 시간을 온전히 나로 향하게 하는 상태이다. 제시문 [나]의 ‘통곡’ 또한 ‘칠정(七情)’의 다양한 감정이 극치에 이르는 상태이며,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인식하게 하는 ‘참된 소리’이다.

그런데 이러한 ‘여유’를 가지려면 ‘쉬는 것을 죄처럼 여기는 사회’의 고정관념을 넘어서려는 적극성이 요구된다. 마찬가지로 ‘통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울음을 ‘슬픔’이라는 감정에만 한정하려는 사람들의 갇힌 생각을 깨는 역발상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제시문 [가]의 ‘여유’와 제시문 [나]의 ‘통곡’은 세상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다르게 보는 전환적 사고를 수반하며, 인간의 본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참모습을 새롭게 만나게 하는 인식의 계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대학 예시답안 분석]

제시문 [가]의 ‘여유’와 제시문 [나]의 ‘통곡’의 의미를 정확히 제시하였다. ‘여유’를 통해 자신의 삶이 가지는 의미를 찾을 수 있고, ‘통곡’을 통해 슬픔만이 아닌 다양한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경험에 이를 수 있음을 잘 파악하였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여유’와 ‘통곡’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을 지적하고, 그것을 넘어섬으로써 인간에 대한 인식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는 점을 적절히 포착하여 제시하였다.

이화여대 2021학년도 모의 인문 I 1-2번

☞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제시문 [가]와 제시문 [다]의 인간관을 대비하여 논하시오. [20점]

[가]

여유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먼저 물질적 여유, 공간적 여유, 시간적 여유처럼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으로 규정되는 여유가 있다. 이때는 여유의 기준이나 넉넉함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비교적 객관적인 편이다.

여유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마음의 상태라고 지칭하긴 했지만 그 마음이 드러나는 표정, 태도, 행동 등을 통해 여유를 가늠할 수 있다.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디에 놀러 가는 것도 특별한 이유 없이 다 싫어진다. 반면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둘러싼 분위기에서 여유로움을 감지할 수 있다.

쉬는 것이 죄처럼 여겨지는 사회에서 여유를 능동적으로 찾는 일은 언뜻 뒷걸음질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유를 낼 때에,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한 발 물러섰을 때에 비로소 주위를 둘러보는 일도,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도 가능해진다. 여유가 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여유를 내려면 의지와 간절함이 필요하다. 여유를 낸다는 것은 다른 것을 할 수도 있는 시간을 나로 향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스스로에게 본래의 정체성을 찾아 주는 일, 나를 둘러싼 시간과 공간에 나를 분명하게 각인하는 일, 마침내 삶이 희미해지지 않게 하는 일, 나는 이러한 일이 모두 자발적으로 나서서 만드는 여유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내가 현재 누리는 여유에 마땅한 이유를 찾아 주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다]

우리 젊은이들이 보고 듣는 모든 예술작품이 몸에 좋은 곳에서 불어오는 미풍처럼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며, 어릴 때부터 곧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말투를 닮고 사랑하고 공감하도록 그들을 이끌어 줄 것이네. 글라우콘, 시가(詩歌) 교육이 그토록 중요한 것은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닐까? 첫째, 리듬과 선법은 그 무엇보다 더 깊숙이 혼의 내면으로 침투하며 우아함을 가져다줌으로써 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네. 그것들은 누가 좋은 교육을 받았을 경우 그를 우아하게 만들고, 누가 나쁜 교육을 받았을 경우 그를 그와 반대되는 사람으로 만드네. 둘째, 이 분야에서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은 예술작품이나 자연의 결점들을 가장 분명히 알아볼 게 될 것이네. 그러면 그는 그것들의 추함이 역겨워 아름다운 것들을 칭찬하고 반길 것이며, 아름다운 것들을 그렇게 혼 안으로 받아들이면 그 자신도 아름답고 훌륭해질 것이네.

최은식T 논리평면 인문논술 '작품' 원고지										이름			
대학교			학년도			기출 / 모의				계열		번 문제	
개 요													
문장 기능		해당 내용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350												
	375												
	400												
	425												
	450												
	475												
	500												
	525												
	550												
	575												
	600												

문장 기능	해당 내용														
625															
650															
675															
700															
725															
750															
775															
800															
825															
850															
875															
900															
925															
950															
975															
1000															
1025															
1050															
1075															
1100															
1125															
1150															
1175															
1200															
1225															
1250															
1275															
1300															

✎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제시문 [가]와 제시문 [다]의 인간관을 대비하여 논하시오. [20점]

[독해]

(가) 자발적 의지 → 주관적(내적) 여유 → 자아성찰

(다) 예술 교육 → 우아한 내면 +分別력 → 훌륭함(사랑, 공감)

[논리평면] 견해(가치추론)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가치
기준	(다)	예술 교육이 있어야	分別력을 갖춘 우아한 내면을 길러서	G(훌륭함)
대상	(가)	자발적 의지를 갖고 여유를 가지면	자아성찰 가능 (→ 충분치 못할 것)	b

[예시답안] 313자

문단	기능	내용
1	기준 핵심	예술 교육은 훌륭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수단이다.
	기준 상술	문학 교육은 分別력을 길러주고, 우아한 내면을 갖추게 해주며, 결과적으로 공감력을 바탕으로 사랑할 줄 아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2	주장	그러므로 제시문 (가)의 인간관은 훌륭함에 이를 수 없는 부적절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대상	(가)는 자발적 의지를 갖고 내면의 여유를 갖춘다면 자아 성찰을 통해 참된 정체성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적용	하지만 외부적 교육이 결여된 순수 의지만으로는 分別력도, 우아한 내면도 제대로 기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가)가 말한 자아 성찰 또한 훌륭한 차원의 성찰은 아닐 것이다.

[대학 출제의도]

제시문 [가]에는 인간의 본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 ‘여유’가 필요하다는 생각, 제시문 [나]에는 다양한 감정을 숨김없이 느끼고 표현하는 ‘통곡’이 중요하다는 통찰, 그리고 제시문 [다]에는 인간이 좋은 예술작품을 통한 교육을 거쳐 바람직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견해가 표현되어 있다. 서로 다른 소재를 다루며 그에 대한 관점도 상이한 글들을 읽고, 주어진 글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 글쓴이의 주장이나 입장에서 대상을 이해하는 힘, 그리고 글쓴이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역량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대학 제시문 해설]

제시문 [가]는 시인 오은의 수필 「이유 있는 여유」에서 발췌한 글이며, 여유에 대한 새로운 인식, 그리고 여유
의 필요성과 기능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다. (출처: 『국어』, 미래엔, 2018, 161-164쪽)

제시문 [다]는 플라톤의 『국가』에서 발췌한 글이며, 예술을 통한 교육의 의미, 그리고 좋은 교육을 통한 인간
의 바람직한 변화와 성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출처: 『생활과윤리』, 미래엔, 2018, 158쪽)

[대학 예시답안] 948자

제시문 [다]의 글쓴이는 인간은 좋은 교육을 받으면 우아해지고, 나쁜 교육을 받으면 그와 반대되는 사람이 된
다고 생각한다. 즉 인간은 미완의 상태에 있으며 어떤 교육을 받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의 상태, 가소성
(可塑性)의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인간은 예술작품으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고 아름다움과 사랑, 그리
고 공감 능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로부터 우리는 제시문 [다]에서 인간을 기본적으로 불완전하며, 좋은
교육과 훌륭한 예술작품과 같은 외부의 긍정적 영향을 통해 보다 나은 인간으로 변화해 갈 수 있는 존재라고 보는
인간관을 읽을 수 있다.

반면 제시문 [가]에서는 인간이 능동적으로 쉼과 멈춤의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으
며,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 속에 그 존재의 의의를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태도와
노력으로 보다 나은 인간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발적으로 나서서 만드는 여
유’이며, 인간은 스스로 그러한 여유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제시문 [다]는 제시문 [가]에 비해 인간을 보다 더 불완전한 존재로 보고, 외부의 좋은 영향
과 교육을 통해 성장해 가야 한다고 보는 반면, 제시문 [가]는 인간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노력이 그 존재를 보다
나은 존재로 만들어 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본다면, 제시문 [가]의 자발적 여유는 그 나름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완전하며, 훌륭한
스승과 좋은 교육, 그리고 뛰어난 예술작품을 통해 바람직한 영향을 받는 일이 중시되어야 한다. 스스로 마련하는
여유의 시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인간이 바람직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좋은 교육을 온전히 대신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학 예시답안 분석]

제시문 [가]와 제시문 [다]에서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였다. 그리고 두 글에 나타난
인간관의 차이점에 주목하고,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두 글에 나타난 인간관을 대비하여 논하였다. 제시문 [다]에
서와 같이 인간을 미완의 존재로 보고 외부의 가르침과 좋은 예술 경험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제시문 [가]
에서 강조하는 여유의 중요성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능동성과 자발성을 통한 성장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
다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 점에 착안하여 문항의 요구대로 제시문 [다]의 시각에서 두 글의 인간관을 적절히
대비하였다.

이화여대 2021학년도 모의 인문 I 2번

- ☞ 제시문 [라]의 핵심 개념을 설명하고, 그 관점에서 제시문 [마]에 나타난 '아빠'의 태도를 평가하시오. [30점]

[라]

레비나스는 “다른 사람은 나의 인식 대상이 아니라 응답의 대상이다. 누구를 안다거나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 응답한다는 것이 인간관계의 기본 구조이다. 가장 새로운 것은 다른 사람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 대한 응답은 내 손에 들어오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다. 무한히 탄생하는 것이다. 세계는 응답에서 무한히 열린다. 다시 말하면 무한 책임에서 무한히 열린다.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 무한한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기존의 근대 철학에서 '나'의 삶은 자유로운 내가 기획한 대로 살 수 있다는 실존의 가능성, 즉 주체성의 자각에서 출발하였다. 이렇게 보면 주체성의 핵심은 철저하게 내 단독의 독립성을 추구하는 데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레비나스는 나의 삶에 창조적 지평을 여는 의미 있는 주체성이란 다른 사람과 마주치면서 그때 드러난 이 타자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에 무한한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새로운 관계를 떠받치는 창조적 주체가 된다고 성찰한다. 마치 윤리적 관계가 있기도 전에 이미 주체가 있었던 것처럼 보면 안 된다는 말이다. 주체는 자기에 대해 있지 않다. 다시 말하지만 주체는 처음부터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있다. 다른 사람이 내게 가까운 것은, 그가 가까운 공간에 있다거나 부모처럼 가까워서가 아니다. 내가 그에게 책임이 있는 한, 그가 내게 다가선다는 면에서 가까운 것이다.

[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말했다. “응웬 씨가 겪었던 일,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래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엄마는 호 아버지와의 응웬 아줌마에게 고개 숙였다.

“저는 모든 걸 제 눈으로 다 봤습니다. 투이 나이 때였죠.” 그렇게 말하고 호 아버지는 붉어진 눈시울로 애써 웃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 아버지는 거기까지 말하고 힘껏 웃어 보였다. 응웬 아줌마는 호 아버지에게 베트남어로 속삭이듯이 이야기했다.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분명 마음을 다독이는 말이었을 것이다. 그 말의 진동이 내 마음까지 위로하는 것 같았으니까.

아빠는 엄마와 호 아버지의 대화를 못 들은 것처럼 맥주만 마시고 있었다.

“당신도 무슨 말 좀 해 봐.” 엄마가 한국어로 아빠에게 말했다.

“내가 무슨 얘길 해? 그럼,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돼? 왜 당신이 나서서 미안하다고 말해? 당신이 뭔데?” 아빠가 한국어로 받아쳤다.

“당신은 항상 이런 식이야. 죽어도 미안하다는 말을 못 해, 안 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내가 응웬 씨였으면 처음부터 우리 가족 만나지도 않았을 거야.”

아빠는 식탁 의자에 걸친 카디건을 팔에 넣었다. “저녁 잘 먹었습니다.” 아빠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저희 형도 그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형 나이 스물이었죠. 용병일 뿐이었어요.” 아빠는 누구의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바닥을 보면서 말했다.

“그들은 아기와 노인들을 죽였어요.” 응웬 아줌마가 말했다.

“누가 베트남인지 누가 민간인인지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아빠는 여전히 응웬 아줌마의 눈을 피하며 말했다.

“태어난 지 고작 일주일 된 아기도 베트남으로 보였을까요. 거동도 못 하는 노인도 베트남으로 보였을까요.”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요? 그건 그저 구역질 나는 학살일 뿐이었어요.” 응웬 아줌마가 말했다. 어떤 감정도 담기지 않은 사무적인 말투였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길 바라시는 겁니까? 저도 형을 잃었다고요. 이미 끝난 일 아닙니까? 잘못했다고 빌고 또 빌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당신 제정신이야?” 엄마가 말했다. 응웬 아줌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서재로 걸어 들어갔다. 조심스럽게 닫히던 문소리. 나는 겁에 질렸지만 차마 서재로 따라 들어가지는 못했다. 엄마는 동생을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는 호 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였다. “투이야, 미안하다.” 엄마는 그 말을 하고 밖으로 나갔다. 나는 기저귀 가방과 카디건을 들고 엄마를 따라 나갔다.

‘그건 그저 구역질 나는 학살일 뿐이었어요.’ 그 말을 하던 응웬 아줌마의 웃음기 없는 얼굴이 자려고 누운 내 얼굴 위로 떠올랐다. 그 말을 할 때 아줌마는 우리와 다른 곳에 있었다. 내가 아무리 상상하려고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장소와 시간에 아줌마는 내몰려 있었다. 그녀의 말은 아빠를 설득하려는 말도 아니었고, 자신을 방어하고자 하는 말도 아니었다. 그 말은 아빠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간, 그 일을 겪은 이후로 애써 살아온 응웬 아줌마 자신에 대한 쓴웃음이었던 것 같다.

최은식T 논리평면 인문논술 '작품' 원고지										이름			
대학교			학년도			기출 / 모의				계열		번 문제	
개 요													
문장 기능		해당 내용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350												
	375												
	400												
	425												
	450												
	475												
	500												
	525												
	550												
	575												
	600												

문장 기능	해당 내용														
625															
650															
675															
700															
725															
750															
775															
800															
825															
850															
875															
900															
925															
950															
975															
1000															
1025															
1050															
1075															
1100															
1125															
1150															
1175															
1200															
1225															
1250															
1275															
1300															

✎ 제시문 [라]의 핵심 개념을 설명하고, 그 관점에서 제시문 [마]에 나타난 ‘아빠’의 태도를 평가하시오. [30점]

[독해]

(라) 타인의 표정에 대한 무한한 응답(책임) → 창조적 주체로서 무한히 탄생: Good

(마)에 나타난 ‘아빠’의 태도: 한국 군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베트남 시민의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한다.

[논리평면] 가치추론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가치
기준	(라)	타인에 대한 무한한 응답(책임)	창조적 주체로서 무한히 탄생	G
대상	(마) 아빠	타인에 대한 책임을 회피	창조적 주체, 관계를 만들지 못함	b

[예시답안] 447자

문단	기능	내용
1	기준 핵심	타인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사람만이 창조적 주체로서 무한히 재탄생될 수 있다.
	기준 상술	제시문 (라)의 레비나스는 타인은 응답의 대상이며,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타인의 표정에 응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세계를 무한히 열 수 있다고 했다.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의미로 가까운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2	주장	이러한 무한 책임의 개념에서 봤을 때, (마)의 ‘아빠’는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상	아빠는 한국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무고한 베트남 국민들의 아픔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않고 있다. 그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적용	이러한 아빠는 타인을 책임의 대상이 아니라, 단순히 인식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으므로 창조적 주체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의미에서 가까운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제한된 존재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대학 출제의도]

이 문항은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주체성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개념을 문학에 적용하여 작품을 해석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이에 답하기 위해 제시문 [라]의 철학자 레비나스가 말하는 무한 책임의 주체가 어떤 것인지 파악해야 하며, 제시문 [마]의 소설 지문에서의 대화 상황을 분석하여 인물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추상적 개념 진술을 통해 이루어진 제시문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구체적인 상황이 제시된 글에 적절하게 적용하여 논증해내야 하는 본 문항에서는 글에 대한 이해력과 문제 해결 능력, 논리적 사고가 종합적으로 요구된다.

[대학 제시문 해설]

제시문 [라]는 레비나스의 「윤리와 무한」 과 그에 대한 해설의 일부분을 발췌 및 재구성하였다. 레비나스의 철학을 통해 타자와의 관계에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출현하는 윤리적 주체를 설명하고 있다. (출처: 『철학』, 천재교과서, 2019, 89쪽)

제시문 [마]는 최은영의 소설 「썩짜오, 썩짜오」 에서 발췌하였다. 타인의 고통에 대응하는 주체의 태도를 심문함으로써 진정한 인간관계와 소통의 의미를 되새기려는 작가의식이 발견되는 글이다. (출처: 『문학』, 금성, 2019, 301-302쪽)

[대학 예시답안] 1,058자

제시문 [라]의 핵심 개념은 ‘다른 사람에 대해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책임의 주체이다. 레비나스는 기존 근대 철학의 유아론적 주체성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탄생하는 주체성을 모색한다. 즉 관계를 통해 열리는 창조적 주체성은 타인과 마주칠 때 그에 응답함으로써 가능하며, 타자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에 반응하고 무한한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비로소 탄생한다. 이렇게 타자의 고통스러운 삶에 책임을 느끼고 그에게 다가서는 윤리적 주체야말로 레비나스가 말하는 무한 책임의 주체이다.

제시문 [마]에서는 어린 시절 베트남 전쟁 중 한국군에 의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응웬 아줌마와 호 아저씨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드러난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갑작스레 타인의 고통을 마주한 ‘엄마’는 그에 대해 잘 모르지만 죄송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대화를 회피하고자 했던 ‘아빠’는 그들의 고통에 응답을 요청하는 엄마의 추궁에 마침내 화를 낸다. 아빠도 베트남 전쟁에 용병으로 참전했던 형을 잃었으며, 이미 끝난 일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자리를 떠난다. 이때 타인의 고통을 마주한 ‘엄마’와 ‘아빠’의 상이한 태도를 제시문 [라]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웬 아줌마와 호 아저씨는 평생 상흔의 기억으로 고통받으며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았고, 그것이 타자의 ‘얼굴’로 현현했다. 레비나스에 의하면 그 표정에 응답함으로써 타자에게 무한한 책임을 질 때 우리는 주체로 탄생할 수 있다. 그러나 ‘아빠’는 대화 과정 내내 그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을 꺼리고, 못 들은 체 하거나 바닥을 내려다본다. 상대의 표정을 보지 않으려 하고, 그에 응답하기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만 말한다. 타인의 고통에 책임을 느끼며 응답하는 ‘엄마’가 윤리적 주체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자신이 겪은 고통만 내세우며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기를 거부하는 ‘아빠’의 태도는 레비나스가 말하는 윤리적 주체, 무한 책임의 주체와 거리가 멀다. 타자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에 무한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는 창조적 주체가 되기 어렵다.

[대학 예시답안 분석]

본 문항에서는 제시문 [라]의 ‘다른 사람에 대해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주체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제시문 [마]의 대화 상황에 적용하여 인물의 태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완성도 높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예시 답안에서는 문항에서 요구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적절한 답을 제시하였다. 제시문 [라]의 핵심 개념을 타자의 ‘얼굴’에 응답하는 무한 책임의 주체로 파악하고, 기존 근대 철학의 유아론적 주체성과 비교함으로써 타인과 마주칠 때 관계를 통해 탄생하는 윤리적 주체성의 의미를 확실히 설명하고 있다. 이어 제시문 [마]의 대화 상황을 분석하며 타인의 고통스러운 얼굴에 응답하는 윤리적 주체로서의 ‘엄마’와의 대비를 통해 대화 내내 타자의 얼굴을 외면하고 응답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책임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아빠’의 태도를 설득력 있게 평가하고 있다.

이화여대 2021학년도 모의 인문 I 3번

- ✎ 제시문 [바]에서 말하는 효과적인 의사 결정 방식을 설명하고, 그 관점에서 제시문 [사]의 '집단 편향이나 쓸림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서술하시오. [30점]

[바]

Scientists are realizing how effective swarm intelligence is. Some scientists are applying what they've learned to solve human problems. Thomas Seeley, a biologist at Cornell University, is impressed by how well bees make decisions. According to him, the bees' rules for decision making are: seek a diversity of options, encourage a free competition among ideas, and use an effective mechanism to narrow choices. He is so impressed. He now uses them at Cornell as chairman of his department. "I've applied what I've learned from the bees to run faculty meetings," he says. He tries to avoid going into a faculty meeting with his mind made up, hearing only what he wants to hear, and pressuring people to conform. He asks his group to identify all the possibilities, show their ideas for a while, then vote by secret ballot. It's exactly what the swarm bees do, which gives a group time to let the best ideas emerge and win. He says that running meetings using swarm intelligence ideas can lead to better decisions. It can also reduce conflict among the staff.

[사]

좋은 논쟁이란 ‘상호 부딪침’이 있는 논쟁을 뜻한다. 그러자면 논점들이 팽팽하게 부딪쳐야 한다. 서로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에서 만나 마치 싸움터에서 장수들이 겨루듯 자신의 논리로 상대와 맞서 싸워야 한다.

논쟁이 생산적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만남’과 ‘부딪침’에 있다. 서로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는 서로 견주어 봐야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이유로 논쟁은 싸움 같지만 사실은 상호 이해의 장이요, 청중들에게는 즐거움과 교육의 장이다. 서로 부딪치는 지점을 논쟁 용어로는 ‘접점’이라고 하는데, ‘상호 갈등 해소를 위한 개념적 장소’쯤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접점에서 만나지 않는 사람들, 즉 다른 의견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메아리 방에서 살듯 자신의 소리만 듣고 살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만나 동종 교배 하듯 서로 동의하며 기존의 입장을 기형적으로 견고하게 다질지도 모른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각각의 집단 편향(집단 극화)이나 쏠림 현상이 강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 시대에 들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최근의 각종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전과는 다르게 사람들은 소수의 여론 주도자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동조하면서 기존의 의견과 입장을 더욱더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나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최은식T 논리평면 인문논술 '작품' 원고지										이름			
대학교			학년도			기출 / 모의				계열		번 문제	
개 요													
문장 기능		해당 내용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350												
	375												
	400												
	425												
	450												
	475												
	500												
	525												
	550												
	575												
	600												

문장 기능	해당 내용														
625															
650															
675															
700															
725															
750															
775															
800															
825															
850															
875															
900															
925															
950															
975															
1000															
1025															
1050															
1075															
1100															
1125															
1150															
1175															
1200															
1225															
1250															
1275															
1300															

✎ 제시문 [바]에서 말하는 효과적인 의사 결정 방식을 설명하고, 그 관점에서 제시문 [사]의 '집단 편향이나 쓸림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서술하시오. [30점]

[독해]

(바) 효과적 의사 결정: 집단지성 - 개방적 시각에서 다양한 아이디어 경쟁 → 최고의 생각 선택 (+갈등 감소)

(사) '집단 편향이나 쓸림 현상': 집단 편향 - 다른 의견은 무시하고 동류 의견들 간에만 교류 → 여론 분열

[논리평면] 대안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기준	(바)	집단 지성 - 개방적 아이디어 경쟁 과정	최고의 아이디어 선택 + 갈등 감소
대상	(사)	다른 견해와의 개방적 교류	분열된 여론을 통합하여 최고의 선택 합의

[예시답안] 442자

문단	기능	내용
1	기준 핵심	집단 지성은 효과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기준 상술	제시문 (바)에 나오듯 집단 지성은 개방적 환경에서 자유롭게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고, 이들 간의 경쟁을 조절하는 효과적인 방식을 통해 최선의 선택지에 합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방법은 집단 내 갈등 또한 예방할 수 있게 해준다.
2	주장	이러한 집단 지성을 통해서 집단 편향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다.
	대상	제시문 (사)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비슷한 의견들 간에만 교류하며 자신의 편향을 강화하곤 한다. 이러한 쓸림 현상으로 인해 여론도 분열되고 있다.
	적용	이러한 쓸림을 방지하기 위해 집단 지성을 도입하면 된다. 집단 구성원들이 모두 개방된 태도로 다른 의견들과 자유롭게 교류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채택한다면 최소한의 갈등으로 집단의 견해를 가장 좋은 선택지로 통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대학 출제의도]

이 문항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장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유사한 주제를 다루는 두 글을 읽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제시문 [바]의 영어 구문과 과학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사]가 지적하는 인터넷 시대 의사소통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문항은 자연 관찰을 통한 과학적 지식을 어떻게 인간 사회에 적용할지에 대한 사실 파악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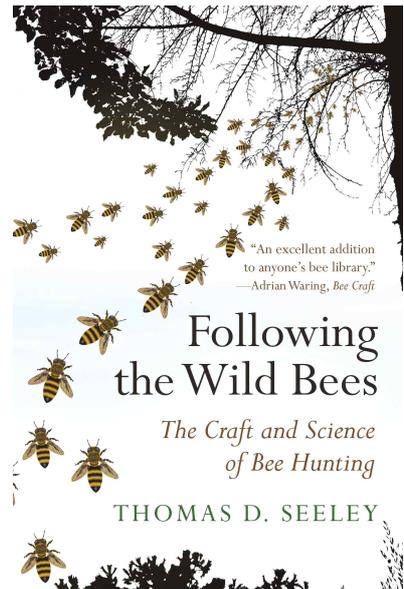
[대학 제시문 해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Wisdom from Nature」에서 발췌하였다. 이 글은 자연에 존재하는 동물들의 경이로운 집단행동으로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출처: 『High School English I』, 교학사, 2019, 36-37쪽)

제시문 [사]는 박성희의 「의견 양극화와 생산적 논쟁」에서 발췌한 글이다. 집단사회 속에서 의견의 양극화를 피하고 생산적인 논쟁을 위해서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과 부딪치거나, 반대 의견을 피하지 않고 경쟁을 통한 의사소통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독서』, 천재교육, 2019, 66-68쪽)

[제시문 [바] 해석]

과학자들은 집단지성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깨닫고 있다. 몇몇 과학자들은 인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들이 배운 것을 적용하고 있다. 코넬 대학의 생물학자인 토마스 실리는 벌이 얼마나 결정을 잘 내리는지를 보고 감명을 받는다. 그에 따르면, 벌들의 의사결정 규칙은 다양한 선택지를 찾고, 생각들 사이의 자유로운 경쟁을 장려하며, 선택의 폭을 좁히기 위해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는 매우 감동받았다. 그는 지금 코넬에서 그것들을 그의 부서의 의장으로서 사용한다. 그는 "벌들로부터 배운 것을 교수회의를 운영하기 위해 적용했다"고 말한다. 그는 마음을 이미 정한 채 교수회의에 들어가는 것,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 사람들에게 순응하라고 압박하는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는 그의 단체에 모든 가능성을 살펴보고, 잠시 그들의 생각을 보여준 다음, 비밀 투표로 투표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바로 떼벌들이 하는 일인데, 이것은 그룹에게 최고의 아이디어가 등장해서 채택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그는 집단지성을 이용하여 회의를 운영하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직원들 간의 갈등을 줄일 수도 있다.



[대학 예시답안] 1,257자

제시문 [바]는 자연에서 발생하는 집단사회 속의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보여주고 있고, 이를 배움으로써 인간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한 예로 벌 집단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여주는바, 미국 코넬대학의 생물학자인 토마스 실리는 집단을 위한 벌들의 의사결정 과정 중 작용하는 규칙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이 규칙을 자신이 학과장으로 재직하는 학과의 교수회의에 적용한다. 실리에 따르면 벌들의 의사결정 규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선택사항이 제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둘째, 제시된 사항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셋째, 최상의 의견을 선택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체제를 사용한다. 벌 집단의 의사결정 규칙을 실리는 자신의 교수회의에 적용하여 구성원들에게 사안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게 하고, 시간을 두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며, 비밀투표로 결정을 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실리는 논쟁을 통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작용하는 집단 지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각 구성원들 간의 갈등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제시문 [바]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으로 언급된 사례는 제시문 [사]에서 지적하는 ‘집단 편향 또는 쏠림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볼 수 있다. 제시문 [사]는 ‘만남’과 ‘부딪침’을 통해서 서로의 의견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생산적인 논쟁이 가능하며, 이런 논쟁의 접전을 피하는 편향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만 주장하여 독선적이 되거나, 또는 자신의 의견과 유사한 의견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집단화함으로써 ‘집단 편향 또는 쏠림 현상’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맥락에서 제시문 [바]에서 구성원들에게 사안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게 하고, 시간을 두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며, 비밀투표로 결정을 하게 하는 과정은 제시문 [사]에서 ‘집단 편향 또는 쏠림 현상’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다른 의견들과의 ‘만남’과 ‘부딪침’이 일어나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나아가 ‘집단 편향 또는 쏠림 현상’에서 나타나는 선택의 기준이 다른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고 동종 교배를 추구하는 유사함이라면 제시문 [바]에서 선택의 기준은 제시된 의견 중 공개적인 경쟁을 거쳐 검증되는 최상의 가치이다. 이런 맥락에서 공개적인 경쟁과 최상의 가치를 선택하는 제시문 [바]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제시문 [사]가 추구하는 생산적인 논쟁과 일맥상통하며, 자신의 의견에 매몰되거나 유사한 의견만 수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집단 편향 또는 쏠림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대학 예시답안 분석]

본 문항에서는 제시문 [사]의 ‘집단 편향 또는 쏠림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논점의 ‘만남과 부딪침’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으로 제시문 [바]가 언급하고 있는 벌 집단의 의사결정 규칙과 그 규칙이 우리 삶에 적용되었을 때의 효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완성도 높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예시 답안에서는 제시문 [바]가 설명하고 있는 벌 집단의 효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구체적으로 요약, 제시되어 있고, 우리의 삶에도 효과적인 의사결정의 규칙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 코넬대학의 생물학자인 실리의 경우를 제시하고 있어 문맥과 사실 파악 능력을 적절히 보이고 있다. 또한, 예시 답안은 제시문 [사]가 비판하는 ‘집단 편향이나 쏠림 현상’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현상을 극복할 한 대안이 제시문 [바]의 효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본 문항의 질문에 충실하게 답하고 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필요한 조건으로 예시 답안은 첫째, 공개적인 논쟁, 둘째, 타인의 의견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의견과의 유사함 보다는 집단을 위한 최상의 가치가 기준이어야 한다고 정리, 서술함으로써 제시문의 내용에 대한 적절한 이해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